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어버이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다 찬양하여라(찬/새21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이여송 장로 2부/이완희 집사 3부/이윤호 장로 4부/김준희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어머니의 넓은 사랑(작곡 이현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에베소서 6:1-4.....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7:41-52
- 말씀 Message1, 2, 3부.....Rev. Paul S. Jeong **정승락 목사**
부모는 아무나 하나
4부.....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어머니의 넓은 사랑(찬304장/새579장)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 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Rev. Paul S. Jeong **정승락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어버이날 선물

Mother's Day(Parent's Day) Gift



정승락 목사 / Rev. Paul S. Jeong

해마다 Mother's Day가 찾아오듯, 저에게는 봄마다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올해는 유독 많은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재채기가 시작되면 차가 흔들리는 공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꽃가루가 코를 간지럽힙니다. 참다못해 재채기를 하면서 "아이고 죽겠다~"를 연발하자, "아빠, 죽으면 안 돼요!"라고 합니다. 역시 아빠를 사랑하는 이는 딸 밖에 없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아이에게 문자 그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빠로서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누구나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말해 주면서 예전에 같이 봤던 자이언트 세쿼이아 나무도 2천 년 밖에 못살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한 줌의 풀과 같으며 복음을 나누려는 순간, 널브러지듯 누워 탄장하던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사 40:8).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나 교회에서 장난꾸러기인 아들이 갑자기 지금 나누는 대화에 딱 들어맞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니 감동과 놀라움이 컸습니다. 학교에서 뽀뽀뽀한 아들의 글씨를 교정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필사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배우며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얼마 전 아들이 유년부 골든벨 퀴즈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칭찬해 주기는커녕 아들에게 대뜸 "혹시 컨닝한 것 아니고?"라며 매정하게 말했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교회 숙제도 정성껏 하지 않던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든벨 퀴즈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도 비결을 물어보니 아들은 아주 쿨하게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를 같이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것입니다. 작년에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에 입학시키며 아이들이 잘 할지 걱정 했었지만, 아빠로서 가장 잘한 일을 묻는다면 바로 이 학교에 입학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떤 선물을 원하느냐는 딸의 질문에 "난 너희들만 있으면 돼. 너희가 아빠 인생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빠, 아빠가 틀렸어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예요."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심쿵'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선물을 생각했던 저에게 아이들은 진정한 선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로부터 기대하지 않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고백처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어버이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Just like Mother's Day comes around every spring, I have a visitor that comes around every spring. It is allergy. With so many pollens flying around, I am at battle with allergies this spring. When I start to sneeze while driving, my car shakes. At times it's a little scary. I felt tickling from pollens in my nose when I was driving my children to school. I tried to hold in my sneeze. I hold until I couldn't and then burst into sneezes, repeating "Oh, I'm gonna die". My daughter immediately responds "Dad, you cannot die". After all, the one who truly loves a father is his daughter. My daughter, who is not fluent in Korean, took literally what I said. As a dad, seeing this as a teachable moment, I told her everyone leaves this world when it's time. Then I reminded her about the giant sequoias we saw awhile back. I said that they live to about 2000 years. I told her life is like a handful of grass. As I was about to share the gospel, my son, who was in the back uninterested, abruptly blurte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endures forever."(Is 40:8) I was shocked. My son, rambunctious at school and church, recites a verse that was perfect for this conversation. I was more shocked than emotional. When I asked him, he said he learned it at school. He was writing to correct his crooked penmanship. It was this verse that he was writing.

I remember not too long ago that my son came in first place at our Church school Primary Department's Golden Bell Quiz. When I heard him, I didn't praise him, but instead questioned him, "you didn't cheat, right?" How was this possible with a child, who doesn't do well on school tests and who doesn't care to do Church school homework, is the thought that came to my mind. When I asked how he did it, he was very cool about it. He said, "I already knew". He said he learned it at school. He naturally gained knowledge through daily Bible class and history class, learning about history of Israel and world history. I was initially concerned whether my children will do well or not when I enrolled them into Bethel Classical Academy last year. After watching my children, if someone asks me what was the best thing I did for my children, I can say enrolling them into the school.

When we were almost at school, my daughter asked what kind of gift I wanted for Parent's Day(Mother's Day). I answered, "All I need is you guys, You are the best gift of my life". My daughter replied, "Dad, you're wrong, dad. The greatest gift is Jesus." I was shocked again. Is this what they mean by when your heart skips a beat? It was a reminder for me, who was thinking worldly, to realize, once again, the meaning of true gift. Today, taking them to school, I have unexpectedly received the best gift from my children. As the children confessed, God's Word is eternal and our greatest gift is Jesus. I wish you a blessed Parent's Day(Mother's Day) in Jesus.

아버지 주일 특집

표현 다 못해도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일 년에 한두 번씩 오셔서 살뜰히 저를 챙겨주셨던 한국에 계신 엄마는, 2019년 팬데믹 이후 오지 못하게 되자, 25kg이 넘는 박스에 사랑을 담아 이것저것 싸 보내십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교회에 제일 먼저 가서서 불을 켜고 평생 새벽예배를 해오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는 3대에까지 축복이 이어진다고 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딸과 사위, 손자, 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엄마로 인해 오늘도 저는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엄마의 기도는 나와 내 아이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늘 가까이하시던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엄마의 든든한 믿음과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저는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눈물 섞인 기도와 손때 묻은 낡은 성경책이 이 먼 외국 땅에 살면서 저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됨을 오늘도 감사히 여기며, 올겨울엔 8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엄마를 보고 싶은 그리움의 눈물이 제 눈을 촉촉이 적십니다. 엄마, 사랑해요.

안현진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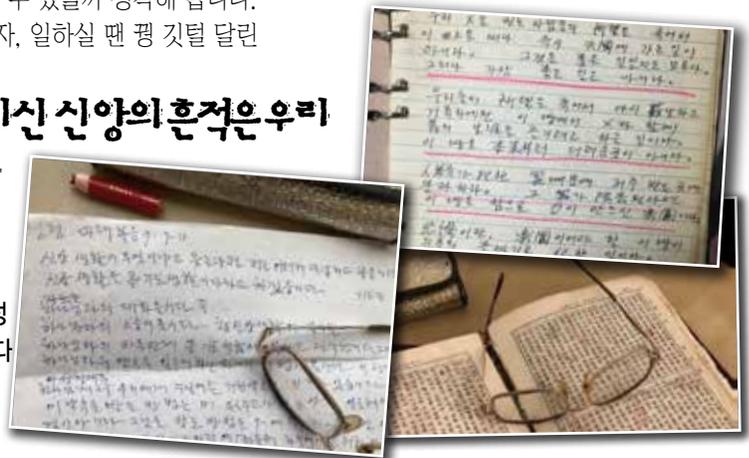
아버지를 생각하면 추운 겨울, 황소처럼 코에서 콧김이 푹푹 나오던 모습이 아버지의 트레이드

마크같이 떠오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벗짚단으로 장미를 예쁘게 싸 주실 때도 아버지의 코에서는 하얀 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강이 푹푹 얼던 그 옛날, 새벽같이 어린 딸들을 깨워 한강 스케이트장으로 데리고 가서서, 추워서 못 하겠다고 떼를 쓰면 스케이트를 벗겨서 아버지의 입김으로 발도, 스케이트도 녹여주시던 아버지의 따스함이 그립습니다. 2살 터울의 올망졸망한 딸들을 지프차에 가득 태워 다니시는 걸 좋아하셨던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자하문 밖, 우이동 계곡, 안양 포도밭, 한강 모래사장, 백운대, 구미산...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의 체취가 금방이라도 묻어 나올 것 같은 그곳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출하실 땐 중절모자, 일하실 땐 핑 깃털 달린

부모님이 남기신 신앙의 흔적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공해 주신 베델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냥 모자를 즐겨 쓰시고 장미와 포인세티아를 좋아하셨고, 항상 두 손 가득 빵을 사 들고 오셨던 아버지... 국 한 그릇, 송농 한 그릇도 맛있게 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친정 나들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내내 아버지 곁에 있었을 것을... 눈물아 비가 되어 아버지 곁에 머물러라~ 오늘은 유난히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 의심치 않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셔도 낙심치 않으시어 오십여년을 한 날같이 믿어오신 우리 부모님 이제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그 믿음을 주셨도다" 라고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유은경 집사

엄마의 날을 축하해요! 제가 언제나 저의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저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늘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엄마, 엄마는 항상 엄마보다 저를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지요. 저는 엄마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엄마의 딸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지수(7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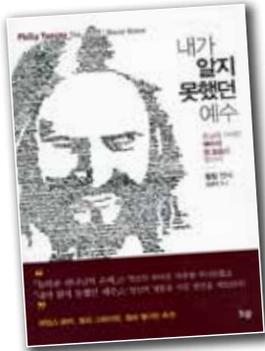
엄마, 아버지 주일과 엄마의 날을 축하합니다! 오늘 특별히 엄마는 항상 저에게 신앙과 믿음을 심어주고,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제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전 너무 행복해요. 언제나 재미있는 엄마, 격려해 주시는 엄마, 저를 위해 항상 인내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엄마라서 고마워요. 저는 언제까지나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믿을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한다비(7학년)

말씀 AGAIN

그때 그 책 이름이 뭐였더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은 신앙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Again" 나눕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The Jesus I never knew, Philip Yancy, IVP)

〈2022년 2월 6일

설교 중〉

복음주의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장을 지낸 이 시대 최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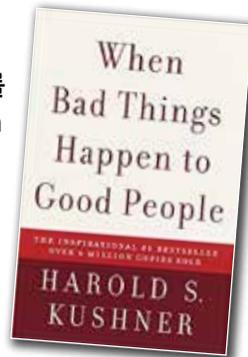
복음주의 작가로 불리는 필립 안시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인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는 헨리 나우웬의 공황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습니다. 하

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의 정신지체장애자 공동체 데이 브레이크에서 아담을 보살피며 헨리 나우웬은 말합니다. "아담과 함께 있을 때면 그로부터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되며 이렇게 얻은 평화는 제가 이전보다 더욱 많은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 얼마나 고상한(HIGH MINDED)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며,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 바로 긍휼(COMPASSION)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해롤드 쿠슈너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Harold S. Kushner)

〈2022년 2월 13일 설교 중〉

유대인 랍비인 저자가 14세에 세상을 떠난 아들 Aron의 죽음을 통해, 착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에



서 그는 말합니다. "결론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로마서 3장 10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랍비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이렇게 좋은 일,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진지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장난 우리의 심장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심장을 새것으로 바꿔 넣어주셔서(심장이식)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베밀뉴스팀

전도 폭발 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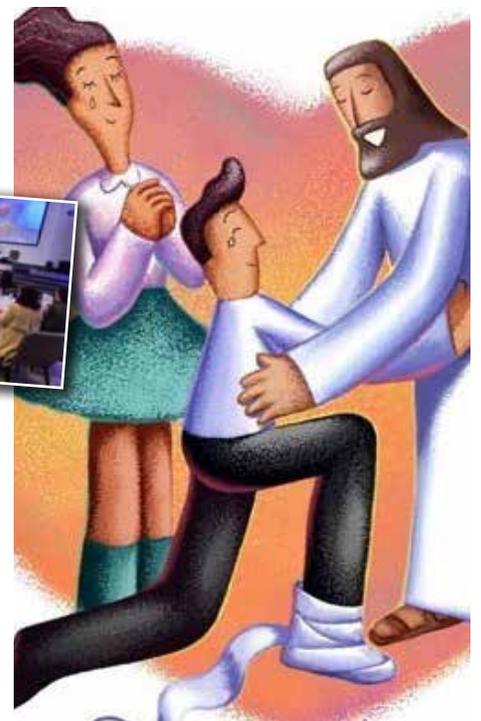
똑똑 두드려 보세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를 감동하게 하는 좋은 말씀이 많아요. 교회 나와서 같이 말씀 들어 봐요." 이런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산 간증이고 찬양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김정순 권사

하지만, 이제 전도 폭발훈련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고,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서 하나



목회자 소개

손창민 목사



1. 목사님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베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에브리데이교회 후임목사 손창민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한요 담임목사님과 베델교회 성도님들께 지면을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 베델 교회로 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에브리데이교회는 존경하는 최홍주 목사님께서 1999년에 개척하여, 큰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부교역자로 섬겨왔습니다. 약 3개월 전에, 최홍주 목사님의 조기 은퇴 발표와 함께, 교회에서 저를 2대 담임목사로 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 후에, 올 연말까지 좋은 교회들을 탐방하며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브리데이교회를 떠나 처음으로 오게 된 교회가 베델교회입니다.

3. 베델교회에 오셔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베델교회에서 드리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은혜로운 설교와 찬양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서부터 교회 앞마당, 예배당 입구까지 각각의 자리에서 안내하시

는 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았고, 예배당에서 마주치는 성도님의 얼굴에도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는 증거 아닐까 싶습니다. 베델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은 들어왔었는데, 와서 보니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인 거 같습니다.

4. 목회를 위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섬기는 에브리데이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모델로 세워져서, 많은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과 도전,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귀처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늦은 밤 홀로 아파하다 사람이 숫자로 보이지 않고 '목숨을 버려야 할 양'으로 보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귀한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싶습니다.

베델선교 - 니카라과

제가, 찾으시는 또한 사람입니다



열대기후이며 건기(1-5월), 우기(5월-12월)로 계절이 구분됩니다. 주요 수출품은 면화, 쇠고기, 커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스페인과 쿠바의 영향을 받아 스페인, 쿠바 문화가 많이 발달하여 있고 특히, 야구를 매우 즐긴다고 합니다.

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선교 기간: 5월 30일(월)-6월 4일(토)
- 문의: 박지학 집사 (217)390-4107
박경철 목사 (949)774-9557

저희 단기 선교팀이 기도하고 있는 니카라과는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며 북으로는 온두라스, 남으로는 코스타리카를 두고 있습니다. 수도는 마나과(Managua)이며 언어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메스티소가 전체 인구의 69%를 차지하는 나라이며 로마 카톨릭이 75%, 개신교가 17%, 인디오 고유의 종교 또한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현지에서 섬기고 계시는 박우석/이현숙 선교사님은 교회 개척 사역과 선교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인 청소년과 어린이들 복음을 위해 세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 저희 단기선교팀은 의료, 안경, 사진 등의 사역 중심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과 사역 가운데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

기도해 주세요

1.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평정을 갖게 하시고 복음이 편안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세워져 있는 각 지교회와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고 영육 간에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3. 공립초등학교의 복음 전파 사역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제자훈련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4. 에벤에셀 선교센터에 우물, 수영장(침례터), 체육관 시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육목사/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경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2년 셀동산에 초대합니다

"베델은 셀목자와 함께합니다"라는 외침으로 2022년 처음 시작한 셀목자 정기모임은 지금까지 꾸준히 함께 모여 베델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고 각 셀식구들과 울고 웃으며, 눈물로 가슴으로 품으시는 진정한 베델의 리더로 사명을 다해 주시는 셀목자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며 함께 달려가는 전우와 같은 분들입니다. 서로 챙겨주면서 끈끈한 사랑의 유대감을 셀식구들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말씀으로 동역하는 담임목사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자, 수고하신 모든 셀목자를 찬양과 기도와 최고의 식사로 초청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더욱 나누고 체험하며, 계속해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위한 영적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김한요 목사

예배와 셀모임은 베델교회 두 개의 기둥으로, 믿음의 도약을 위해 헌신하신 셀목자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라는 주제로 셀동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베델의 셀모임은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의 현장을 위해 마련된 셀동산은 담임목사님과 함께 말씀과 찬양, 깊고 뜨거운 기도, 열정적인 셀목자 나눔의 시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간증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봄학기 셀동산은 남성 셀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부디 모두 참석하시어 주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힘과 소명으로 셀목자 자신을 충전하시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 일시: 5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서 1시까지
- ▶ 모임 장소: 베델 그레이스 채플(BGC)
- ▶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월)	5/15: ①부-정우영	②부-이중교	③부-이 청	④부-나승호
	5/22: ①부-정병철	②부-이해원	③부-전승윤	④부-오새아
	5/29: ①부-조원태	②부-조관희	③부-조만걸	④부-윤세희

헬시바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6월)	5/14: 김호경	5/21: 박관수	5/28: 박기승	6/4: 박기준
----------------------	-----------	-----------	-----------	----------

강단꽃(5월)	5/8: 곽연자	5/15: 이충경	5/22: 임명신	5/29: 송미선
---------	----------	-----------	-----------	-----------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미숙(한 의사), 간호사-김현욱 다음주 | 간호사-채수정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영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베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오늘은 어버이주일! Happy Mother's Day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며, 주의 사랑으로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된 카네이션을 본당 입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BCA 코트 야드에 픽업해 주세요.

◆어버이주일 베델 사진관 어버이 주일을 코트야드 포토존에서 부부 및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기념 사진을 남기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5월달 베델수요예배는 큐티를 주제로 한 달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배후에는 큐티 나눔시간이 진행 될 예정이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본당에서 현장예배로 드리고,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2022 상반기 베델 셀목자 "셀동산" 셀식구들을 위해 말씀의 통로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셀목자님들을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2022년 상반기 셀목자 동산에 초대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나눔, 그리고 교재로 충만할 이번 셀동산에는 남성 셀목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오니 남성 셀목자님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큰 은혜와 함께 하는 기쁨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5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Bethel Grace 채플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신임 셀목자 교육 2022년 2회차 신임 셀목자 교육 신청을받습니다. 4주간의 훈련을 통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베델 셀목자로 세워지는 귀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5월 14일(토) 신청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2022년 베델 선교 바자회 선교 바자회가 5월 21일(토) 헵시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상품판매 부스를 운영하실 분이나 물품을 도네이션 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5월 21일(토) 오전 7시-오후 1시, 교회 코트야드 문의: 김효선 집사 (714)438-9381

◆은퇴장로 조찬 모임 은퇴 장로님들을 위한 조찬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일시/장소: 5월 14일(토) 오전 7시 30분, 유년부실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원 모집 7월 4일(월)부터 9일(토)까지 코스타리카에서 의료, 안경, 어린이 VBS,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오세영 집사 (949)892-9929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원 모집 7월 4일(월)부터 13일(수)까지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VBS, 안경,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임동역 장로 (323)356-0521

◆태국 단기 선교팀원 모집 8월 1일(월)부터 9일(화)까지 태국에서 어린이 VBS, 의료, 사진 등의 사역으로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최효경 집사 (714)398-3914

◆영아부, K-1, 초등부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K-1(3부), 초등부(2,3부) 교사 혹은 TA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소망부 교사 모집 소망부(장애인) Hope Ministry에서 베델 토요학교를 진행중입니다.(토요일 오전 10시-2시) 함께 섬겨주실 선생님과 T.A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간: 6월 18일(토)까지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김종현 집사 (949)533-4520

◆교회학교 Mother's Day 활동 교회학교에서 Mother's Day를 맞이하여 어머니들을 위한 크래프트 만들기를 합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베델 일본어 예배 9주년 감사 예배 베델 일본어예배가 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팬데믹이라는 성장통을 지나 이제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접어드는 일본어예배의 아홉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담임목사님의 말씀과 성도님들의 축하 속에서 드러지는 감사의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일시: 5월 15일(주일) 오후 1시 15분 장소: 임마누엘 채플 문의: 코바야시 타카시 집사 (949)504-0244

◆베델 수요예배 찬양팀 모집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러지는 베델 수요예배 워십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수요예배를 섬겨 주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집분야: 베이스키타, 세컨 키보드, 드럼 등 각종악기 문의: 홍문령 집사 (650)284-9766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효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Not Everyone Can be Parents

Ephesians 6:1-4

Apply to Life



1. Chapters 5-6 in Ephesians discuss what is the result of living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ll in the blanks below.

-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eans the _____ of Christ dwell in us richly. (Col 3:16)
- Example of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_____ (Eph 5:22-33)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_____ (Eph 6:1-4).

2. What is God's command to the children and the benefits that result from it? (Ref: Eph 6:1-2) Please share and discuss with fellow cell families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3. What is the position of the fathers (parents) within the family? And, what is the command from God directed towards the fathers (parents)? (Ref: Eph 6:4)

4. Please share and discuss how we should live our lives in order to obey God's commands for the children and parents in today's verses.

5. As we long for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 the Word / Christ, let us pray together.

■ **Song in Response:** Precious Love, the Love of Mother